

# 정부, 석유화학산업 자발적 구조개편 이끈다

오늘 산업장관회의서 대책방안 발표  
사업재편 때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생산감축·사업매각·M&A 등 유도

정부가 '풍전등화' 상황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업계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끌어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생산 설비 감축 및 폐쇄, 사업 매각 등 지구 노력을 하는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되,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기업이 득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화학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업계 관리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업계가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정부가 이를 유도하기 위한 관리에



추석 선물세트 미리 예약하세요 19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내달 26일까지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에서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조금 더 버티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해 누가 먼저 감산·감축에 나서느냐를 두고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적극 관리하고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관

리를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화 사업 재편 유형으로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인수·합병(M&A) 등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업·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추진 시에는 기

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 교환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문턱도 낮춘다.

사업 재편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과점 규제 등 현행 공정거래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납사·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 연장, 에탄 등 원료 확보를 위한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 트랙' 지원, 공급 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등도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3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자금 지원과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근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부가가치·친환경 화학소재 품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석화 산업은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공멸하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별, 지역별 상황에 맞게 사업 재편을 통한 건강한 생태계 복원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그 과정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투데이경제



### 농협전남본부, 을지연습 기간 소방훈련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19일 "전남본부 건물 1층에서 임직원과 함께 화재 대피훈련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남악 소방서 119 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해 더욱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훈련은 정부의 을지연습 기간에 맞춰 실시됐으며 농협 고객의 위급상황 발생과 같은 비상 상황 시 임직원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실시했다.

전남농협은 ▲전시 채소류 효율적 공급 ▲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위급사태 시 양곡창고 관리 등 전시상황을 가정한 연습을 수행했다.

이광일 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을지연습이 국가 비상사태에 농협의 역할을 인식하고 숙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소방안전훈련을 통해 농협임직원의 위급상황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 농협광주본부, 추석맞이 소비자 만족행사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19일 광주본부에서 농협무우촌 광주지점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목우촌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대규모 만족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문재 농협무우촌 감사실장, 이현호 광주지역본부장, 장재영 NH농협은행 본부장을 비롯한 농협광주본부 임직원과 목우촌 광주지점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내방 고객과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목우촌 추석 선물세트와 다양한 가공식품을 소개했다.

또한 순국내산 원료육으로 만든 간편식 시식 코너도 운영해 현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엔 처음 선보인 신제품 '생생육포'는 국내산 100% 닭가슴살을 사용하고 저온 숙성과 열풍 건조 공법을 거쳐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은 제품으로 시식행사에 참여한 고객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안태호기자

## 중기부 '청년일자리 감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9일 "고용노동부와 이날부터 9월15일까지 '2025년 청년 일자리 감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감소기업은 20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청년이 원하는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온 사업이다.

특히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결격요건에 해당 하는 기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청년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일자리 수준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청년이 안심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청년일자리 감소기업 누리집 (<http://kangso.ko.va.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2월말 결과를 발표하며 선정기업에는 전기세무조사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3년간(2026년1월1일~2028년12월31일) 주어진다. /안태호기자

# '영끌·빚투'에 2분기 가계빚 1천953조 '역대 최대'

## 주택담보대출 15조 늘어

올해 2분기(4-6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 '빚투'(대출로 투자)를 통한 주택·주식 등 자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 빚(부채)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 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952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1천928조3천억원)보다 24조6천억원이나 늘어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많다. 분기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걸쳐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 작년 1분기 3조1천억원 줄었지만, 한 분기 만에 반등한 뒤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증가세를

## 가계신용잔액 추이



이어갔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2분기 말 잔액이 1천832조6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1천809조5천억원)보다 23조1천억원 불었다. 증가폭이 전 분기(+3조9억원)의 약 6배에 이른다. /연합뉴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천148조2천억원)이 14조9천억원 늘었고,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684조4천억원)도 8조2천억원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331조2천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28.8%를 차지했다. 한 분기 사이 2조6천억원 늘었지만, 비중은 29.0%에서 소폭 줄었다.

대출 장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잔액 908조7천억원)이 석 달 사이 19조3천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기타대출이 3조3천억원 각각 불었다.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 314조2천억원)도 3조원 증가했다. 작년 4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늘었고, 증가 폭도 1분기 1조원의 3배로 뛰었다. 보험·증권·자산운용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잔액 524조7천억원) 역시 9천억원 늘었다. /연합뉴스

##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